

2010 Winter

Vol. **67**



# 희망미소

[www.kclf.org](http://www.kclf.org)



재능기부 : '디 일러' 홍원표 작가



Korea Childhood Leukemia Foundation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우리가 함께 만드는 감동



오연천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서울대학교 총장

지구 온난화로 봄과 가을이 많이 짧아졌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계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계절이 변할 때마다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매서운 겨울 한파를 조용히 견디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을 배우게 됩니다.

2010년, 저에게는 인상 깊게 남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칠레 광산붕괴로 매몰되었던 광부 33명이 69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되었던 일입니다. 한줄기 빛도 없는 어두운 땅속에 매몰된 광부들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지상에 있는 가족들의 글을 보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명씩 땅속에서 지상으로 나올 때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칠레의 광부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을 재단에서 봅니다. 69일보다 훨씬 긴, 몇 년의 힘든 치료기간을 사랑과 희망으로 이겨낸 소아암 어린이와 그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어려움을 내 아이, 내 조카, 내 동생으로 생각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나눔은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는 어두운 땅속에서 지상으로 광부들을 올려보낸 구출캅술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나눔이 모여 한명 한명의 아이들을 살리는 감동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소아암은 더 이상 영화 속 주인공이 걸리는 불치병이 아닌,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응원하여 소아암 어린이들 모두 완치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더 든든한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함께 해 주시는 가족과 후원자 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이식이 맺어준 인연, 언니께



언니, 벌써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네요.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오늘, 언니를 떠올리며 편지를 써요. 언니를 떠올리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마음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요.

벌써 언니의 골수를 받은 지 1년이 훌쩍 넘었네요. 발병하고 이식까지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저희 가족은 골수공여자를 찾는 동안 마음을 졸이고 기도했어요. 주변에 골수 공여자가 없어서 이식을 못하는 아이들도 종종 볼 수 있었거든요. 골수 기증은 어린 소아암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방법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은 왜 기피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골수 기증도 기부나 나눔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편화되지 않아서 이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안타깝기만 하네요. 이런 생각을 하면 언니가 너무나 고마워요. 언니와 저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인데 저를 위해서 소중한 피를 나누어주셨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 어려운 결정해 준 언니께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언니가 준 선물이라고 여기며 보람차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언니와 이식으로 인연을 맺게 된 것이 가끔은 너무 신기해요. 수많은 사람들 중 여자이고 나이가 딱 2배 차이 나며, 유전자 구조가 거의 같은 언니와의 만남이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비록 얼굴은 모르지만 언니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도 행복해요. 언니, 혹시 아세요? 언니가 저에게 처음 편지를 보내주셨을 때, 저는 이식 후 한참 힘들 때였어요. 무균실에서 홀로 모든 아픔을 견뎌내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전화로 언니의 편지를 읽어주셨어요. 수화기를 통해 전해지는 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해서 저는 그날 밤, 감사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하느님, 저에게 이런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다니고 싶었던 학교도 다니고 먹고 싶은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입원과 치료로 빼앗긴 1년 반의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보상받고 싶은 생각까지 든답니다. 그래도 병을 앓고 입원해 본 경험으로 인해 제가 더 많이 성숙해졌다는 건 인정해요. 아프기 전에는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거든요.

언니, 1년이 지난 지금도 언니에게 받은 골수를 적용시키느라 제 몸이 좀 힘들어하네요. 하지만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도 언젠가는 끝나는 것처럼 이 난관도 잘 극복되리라 믿어요. 무엇보다 저에게는 언니 같은 좋은 분의 응원이 언제나 함께 하니깐요! 친언니보다도 더 친언니 같은 언니의 관심과 사랑에 항상 감사드려요. 언니, 추운 날씨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히 출산하세요. 사랑합니다.

*언니의 영원한 J*

P.S. 서로의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해서 저는 공여자 언니의 세례명을 알고 제 자신은 공여자 언니에게 이니셜 J로 통하고 있어요.

\* 올해 17살 고등학교 1학년인 홍진솔 양은 2008년 6월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진단받고, 2009년 1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습니다. 진솔 양은 MBC 특별기획 <어린이에게 새생명을> 방송 20주년 기념으로 본 재단에서 주관한 편지쓰기대회에서 자신에게 새생명을 선물한 골수기증자 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편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 완치자의 참여를 기다리는

# 2011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완치자(치료종결자) 프로그램

INFORMATION

### 제5회 희망장학금 지원

완치자의 학업증진을 격려하고, 소아암 어린이와 일반인에게는 소아암이 완치되는 질병임을 알리고 완치의 희망을 갖도록 합니다.

- 1) 지원내용 : 대학(원) 등록금 300만원
- 2) 지원대상 : 대학(원) 입학 예정 혹은 재학 중인 소아암 및 재생불량빈혈 완치자 10명, 대학 재학생(예정자)을 우선하여 지원.
- 3) 신청기간 : 2011년 7월 중 재단 홈페이지 신청 공고
- 4) 신청방법 : E-mail 접수
- 5) 선정발표 및 전달식 : 2011년 8월 중순 예정

### 제3회 자기성장 프로젝트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자신 안의 새로운 나를 만나고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1) 진행내용 : 2박 3일 일정의 야영수련 프로그램
- 2) 참가대상 : 소아암 완치자 15명(치료종결 후 3년이 경과된 청소년 우선 접수)
- 3) 신청기간 : 2011년 5월 중 재단 홈페이지 신청 공고
- 4) 신청방법 : 전화 접수(061-375-7671)

### 완치자 자원봉사

#### 1) 소아암 바로알기 캠페인

소아암 바로알기 캠페인은 소아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일반인에게 전달하여 소아암 어린이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 자원봉사내용 : 주 1회 이상 캠페인 관련 회의에 참가하고, 캠페인 기획 및 홍보를 함께 진행
- 자원봉사대상 : 만 19세 이상의 소아암 완치자 2~4명
- 신청기간 : 2011년 1~3월(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전화 접수(02-745-7671)

## 2) 완치자 상담가

재단 홈페이지 '완치자 리얼스토리' 공간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의 어려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과 경험 나눔을 통해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합니다.

- 자원봉사내용 : 인터넷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의 고민글에 대한 댓글 작성
- 자원봉사대상 : 만 19세 이상의 소아암 완치자
- 신청기간 : 상시 접수(대기자로 접수 후, 결원 시 충원)
- 신청방법 : 전화 접수(061-375-7671)

### 알려드립니다

## 완치자 리얼스토리 OPEN!

소아암 어린이의 생각과 고민! 완치자 상담가가 함께 합니다!

지금 열심히 치료 중인 소아암 어린이 여러분! 혹시 고민과 걱정이 있나요?

이런 문제를 함께 들어줄 좋은 친구가 필요한가요?

재단 홈페이지 내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공간 '완치자 리얼스토리'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곳에 걱정이나 고민을 남겨보세요! 여러분처럼 치료를 받고 완치 후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는 완치자 상담가가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줍니다.

### 들어가는 방법

재단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완치자 이야기 ▶ 완치자 리얼스토리(회원가입 후, 글 작성)



**완치자 리얼스토리** \_ 완치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눕니다. [홈](#) > [커뮤니티](#) > [완치자 리얼스토리](#) > [완치자 이야기](#)

제목 | 완치자 상담가를 소개합니다.

등록자 | [한국생명당암학연구소](#) 날짜 | 2010-08-04 조회수 | 254

첨부파일

*완치자 리얼스토리, 완치자 상담가를 소개합니다.*

[완치자 상담가] 단비  
 기간단일~치료종결일: 2001년 11월 ~ 2003년 3월  
 기간 단 명 : 유양옥중  
 지금 나는!! : 대학과 간호학과 재학 중  
 가장 큰 희망 : 마음이 따뜻한 간호사  
 다 와 우 명 : '완전히 기도 후준하게만 움직이면 결승점에 도달 할 수 있다.'  
 치료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마디  
 ->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힘내!'

[완치자 상담가] 황논이  
 기간단일~치료종결일 : 1997년 12월 ~ 2001년 12월  
 기간 단 명 : 약성림프종



## 소아암, 또 다른 내 삶의 원동력



### 김민아

1983년 2월 23일생  
1995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진단  
1998년 치료종결  
현재 미국 남가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저는 중학교 시절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진단을 받고, 약 2년 동안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항암치료 과정은 힘들었지만 항상 곁에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주는 가족들, 그리고 회복과 완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이 있었기에 치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치료 중에도 쉬지 않았던 학교생활은 항암치료로 지쳐있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병원생활과 학교생활을 병행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열정을 갖고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남다른 외모, 잦은 조퇴와 결석 때문에 친구들은 저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랬던 학교 친구들도 이제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1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친구' 라는 이름으로 제 곁을 지켜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투병생활이 즐거웠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기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저는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강렬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온 몸에 마비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 회복하게 되었지만, 그 때 저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회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적 관심과 제도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지금 제 사회복지학 공부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소아암과 같은 신체적 질병이나 정신질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완치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면서, 사회 전반의 인식도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완치자들이 소아암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활발히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학업의 중단이나 외모의 변화 등 여러 가지로 외롭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아암 친구들도 긍정적인 가치관,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꾸준히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기 바랍니다.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 모두 여러분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열심히 도와드릴 거예요. 앞으로 경험하게 될 넓은 세상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탐구생활 3탄

# 앗! 앓! 앓!

오늘 소아암 어린이 쉼터에 자원봉사 하러 가는 날이에요. 지난 번 이미 실수할 건 다 했으니, 더 이상 실수할 건 없을 거예요. 이제 아이들에게 ‘형’, ‘언니’ 따위의 성별 관련 용어는 쓰지 않을 거예요. 가려 먹어야 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간식’을 사갔고 가서, 아이들을 현혹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짓 따위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준비된 ‘완벽 자원봉사자’로 거듭났어요.

발걸음도 가벼운 것이 느낌이 좋은 오늘이에요. 쉼터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준비된 나의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를 최종 점검하고, 책상 위에 만들기 재료를 준비해 놓았어요. 자 프로그램 시작 전 60초, 59초...,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요. 아이들이 하나, 둘 들어와요.

오늘 온 어떤 아이는 눈썹이 짙고, 얼굴도 크고 넓직한 게 아주 장군처럼 잘 생겼어요. 그래도 어

자일지 모르니 남자라는 선부른 판단은 하지 않아요. 완벽한 자원봉사는 그런 거예요. 그 때였어요. 옆에 귀여운 꼬마가 말해요. “오빠, 오늘 뭐 하는 줄 알아?”, 옹기니! 남자가 확실해요. 친밀감 조성을 위한 멘트를 날려줄 때예요. 완벽한 자원봉사자는 시기적절한 멘트를 잘 구사해요.

“야, 너 진짜 남자답게 생겼다. 짙은 눈썹, 짙은 솜털, 둥근 얼굴, 삼국지에 나온 장비처럼 생겼다. 멋있다.”

그런데 아이의 반응이 영~, 좋지 않아요. 아이가 속상한 얼굴로 말해요.

“저, 약 끊으면(치료를 위해 먹는 약물들을 안 먹게 되면), 원래 제 얼굴로 돌아올 거예요.”

아이가 핸드폰 속 옛날 자기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요즘 나오는 아이들 가수 뺨치게 곱상하게 생겼어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요.

오늘도 앓! 나의 실수였어요. 완벽한 자원봉사자의 길은 멀고도 험해요.

**소아암 어린이는 약물로 인해 급격한 외모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삼가해 주세요!!**

\* 상기의 글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

## 희망maker를 만나다!

### ※ '희망maker를 만나다'는?

소아암 어린이가 자신의 장애희망과 관련된 유명 인사를 만나고, 그 꿈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 이상목 교수님은?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 불리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상목 교수는 2006년 미국에서 야외지질조사를 진행하다 사고로 전신마비척수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6개월 만에 서울대학교 강단에 복귀하여 현재 교수로서, 학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재활과 독립을 돕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상수 어린이, 희망maker 이상목 교수를 만나다.

상수는 2008년 7월 악성림프종으로 치료 받던 중 2009년 11월 재발되어 치료 받고, 병원 통원치료와 동시에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과학과 관련된 이야기 찾아보기, 과학책 읽기, 인터넷 게임을 좋아하는 상수는 '저와 같은 병은 아니지만, 불편한 몸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이상목 박사님과 만난다면, 그 만남이 제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값진 만남이 될 것 같아요.'라며 '희망maker를 만나다'를 신청했습니다.

2010년 11월 27일,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 전남 무안의 멋진 청소년 상수는 자신의 꿈이자 희망인 서울대학교 이상목 교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미래의 제 꿈인 교수님을 만나게 된다니, 떨려요."라며 상수는 상기된 얼굴로 이상목 교수님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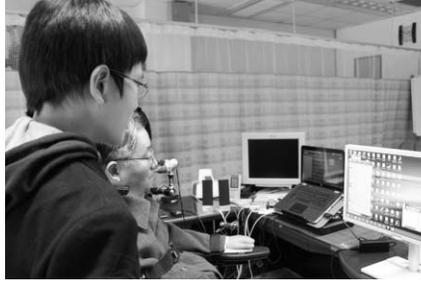
이상목 교수님은 상수와 상수 가족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휠체어가 아이들에게 낯설어 보이지 않기

위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욕창을 정말 조심해야 해요."라고 하시며 휠체어를 뒤로 젖혔습니다. "신기하지? 이렇게 피가 통해야 예쁜 엉덩이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라고 말씀하며, 조심스러워 하는 상수를 웃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수님의 휠체어는 머리를 움직일 수 있는 교수님의 체형에 맞게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휠체어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휠체어의 원리가 자동차 후방감지 센서와 비슷한 원리라고 설명해 주면서 사고가 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휠체어 같은 것을 다 알고 쓸 수 있었던 첫째 이유가 미국에서 다쳤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병원비가 많이 비싸지요. 병원에 3개월 있었는데 병원비가 10억이나 나왔어요. 너무 비싼 병원비 때문에 빨리 퇴원해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냥 퇴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퇴원 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었지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컴퓨터 등의 발달된 기술 덕분에



에 다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학교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에 빠져들었던 상수와 가족은 최근 이상목 교수님이 만든 '입으로 켜는 IP TV 개발'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였습니다.

『전 손을 움직일 수 없으니 리모컨을 못 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사람들이 보는 TV 프로그램을 같이 봐야만 했지요. 그러다 컴퓨터 마우스 등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 이 리모컨을 만들게 되었어요. 앞으로 모든 교육은 IP TV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사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이나 장기 입원 환자의 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꼭 보니 장애인이나 아픈 아이들의 경우, 아이들의 생활과 모든 문제가 엄마 차지가 되고, 그 아이들의 인생이 엄마의 인생이 되더라고요. 엄마들은 건강이 제일이라며 아이들에게 공부를 안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기술의 발달, 의학의 발달로 아이들 상태가 좋아지게 되면 공부 안 시킨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생각하고 있지요.』

상수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많이 힘들었다는 상수 어머니는 교수님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전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누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실력보다 운이 좋았지요.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실력이 모자라도 희망을 가지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제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운의 시작이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단지 인생의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절대자가 있다면, 내가 나쁜 짓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생기게 했다면,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은 제가 몰랐던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했지요. '불행의 시작이 아닌 방향의 전환』

상수 어머니는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소아암 발병이 더 큰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인생의 방향 전환임으로 상수가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는 교수님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비록 손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교수님은 입으로 모든 컴퓨터 작업, 전화 걸고 받기, TV 보기 등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상수는 한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희망maker! 이상목 교수님과의 만남이 상수에게 큰 희망이 되어 상수가 훌륭한 물리학자가 되길 바랍니다.

.....  
\* 값진 시간을 내어주고 말씀을 전해주시신 이상목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한사랑의집에서는

# www.kclf.org

### 서울 우체국 한사랑의집

#### 우리동네콘서트



우리나라의 자랑! 최고의 첼리스트! 양성원 교수님을 아시나요? 양성원 교수님이 직접 심터를 찾아와 심터 가족을 위해 연주해 주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식 선생님과 기타리스트 서정실 선생님이 함께 한 아름다운 3중주는 추운 겨울, 치료와 간병으로 고단했던 아이와 어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 주었습니다. 심터의 작은 공간이 이날만큼은 어느 연주회장 보다도 멋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황홀한 연주로 심터 가족을 위로해 준 세 분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천하장사! 리바트!



리바트의 힘센 장사들이 나섰습니다. 으샤! TV도, 소파도, 책장도 모두모두 번쩍! 서울심터 친구들이 만들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프로그램실을 더 넓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젓 먹던 힘까지 모두 내었습니다. 리바트 장사들 덕분에 프로그램실은 더 화사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공간의 마술을 보여준 리바트 장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 세균 박멸



(주)한국감염관리본부로부터 감염관리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해 준 이 서비스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모두 몰아내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염려하고, 완치를 응원해 주는 (주)한국감염관리본부에 감사드립니다.

### 부산 우체국 한사랑의집

#### 깜짝 퀴즈 대회



추석을 맞이하여 소아암 어린이가 깜짝 퀴즈 대회를 열었습니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춰 상품을 손에 거머쥐고야 말겠다는 아이들의 눈망울은 그 어느 때보다 초롱초롱했습니다. 아이들은 흥겨운 퀴즈 대회 후, 병실에 있어 함께 하지 못한 친구에게 자신이 받은 떡과 상품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날 아이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추석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동래구청 헌혈증서 기증



11월 4일, 부산 동래구청에서 헌혈증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동래구청 민방위대원분들이 모아준 헌혈증서에 담긴 따뜻한 정성과 사랑이 소아암 어린이에게 전달되어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www.kclf.org

**전남 우체국 한사랑의집**

**전남체신청 헌혈증서 기증**



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힘내고, 파이팅!'이라는 희망메시지를 재단에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전남체신청에서는 매년 두 차례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사랑의 헌혈운동'을 통해 모아진 헌혈증서 500매와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노는 모습을

**두 대의 공기청정기**



주었습니다. 직원 분들은 쉼터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도 해주었습니다.

항상 격려와 관심을 아낌없이 보내주는 우정사업본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정사업본부 직원 분들이 쇼아암 어린이 가족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두 손 무겁게 값진 선물, 공기청정기를 들고 방문해

**대구 우체국 한사랑의집**

**추석맞이 행사**

병원에서 추석을 맞은 친구들을 위해 즐거운 명절맞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 하나! 나만의 송편만들기**



다. 멋진 모양만큼이나 맛도 역시 최고였습니다.

송편을 만드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기분 좋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그란 송편은 이제 그만!

우리 친구들이 나서서 떡을 만드니 별 모양, 달 모양, 호박 모양까지 아주 다양하고 멋진 떡이 만들어졌습니다.

**\* 둘! 웃놀이 한판!**



모든 암세포를 물리칠 기세였습니다. 씩씩함과 즐거움이 가득한 병실에서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병실의 모든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웃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도, 개, 걸, 웃, 모! 열심히 외치는 친구들의 힘찬 목소리는 병원에 있는

# 지원 결정 환아

## 이식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희연(급성골수성백혈병/해운대백병원/경남) 1,000만원

### 삼성SDS

이현암(급성미증표현형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500만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안지걸(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충남) 800만원

### (주)옥션 각 2,000만원

이민재(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경기)  
길소영(신경모세포종/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부산)  
조하성(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서울)  
박수아(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서울성모병원/울산)  
이하경(혈액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종/서울성모병원/충북)

### 우체국한사랑기금 각 300만원

이혜인(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대구)  
김철호(신경모세포종/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경남)  
이현암(급성미증표현형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 차가게살자(드림백토리클럽)

이혜인(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대구) 700만원

### 도달소프트뱅크

김철호(신경모세포종/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경남) 700만원

### 2010MBC어린이에게새생명울

윤준성(급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제주) 800만원  
이규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전남) 1,500만원  
김나영(뇌종양/서울대학교병원/충북) 800만원  
김지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인천) 800만원  
성희경(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경남) 800만원  
이혜인(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대구) 1,000만원

## 익명후원자 각 2,000만원

박수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석윤성(급성골수성백혈병/영남대학교의료원/대구)

## 재활치료비

### KCMC

임수연(망막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경기) 100만원  
장재혁(황문근육종/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부산) 200만원  
조범수(수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인천) 300만원  
한수현(골육종/원자력병원/전북) 400만원

### AFC

장재혁(황문근육종/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부산) 50만원

### 외환은행나눔재단

김재민(섬유육종/삼성서울병원/대구) 400만원  
목하은(망막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경기) 100만원  
신연우(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경기) 300만원  
하승준(뇌종양/동아대학교의료원/부산) 300만원  
한영정(배아세포종/경북대학교병원/경북) 300만원

## 치료비

### 2010MBC어린이에게새생명울

문영성(신경모세포종/충남대학교병원/충북) 2,175,510원  
윤소영(골육종/국립암센터/인천) 800만원  
이정호(유양육종/국립암센터/인천) 5,938,590원  
이현암(급성미증표현형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300만원

### 김현중퍼파트

박술(급성림프모구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경남) 500만원

## 나향

김정인(급성골수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광주) 210만원

### 삼성SDS 각 500만원

윤소영(골육종/국립암센터/인천)  
김보영(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경남)  
서민재(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경기)

###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각 500만원

김재은(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경기)  
유지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서울)  
황시정(황문근육종/삼성서울병원/대구)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박수아(혈구탐식성조직구증식종/서울성모병원/울산) 9,237,310원

### 서울병원

유혜린(수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경기) 500만원  
이현암(급성미증표현형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500만원

### 세이제강

박시후(신경모세포종/서울성모병원/경기) 500만원  
이정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1,086,800원  
조혜인(급성골수성유종/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대구) 6,913,200원  
최준희(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인천) 700만원  
허지성(황문근육종/국립암센터/경기) 500만원

### 우체국한사랑기금 각 300만원

강중윤(골수이형성증/삼성서울병원/서울)  
유혜린(수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경기)  
박민성(수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광주)  
신소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허지성(황문근육종/국립암센터/경기)  
황시정(뇌종양/삼성서울병원/대구)

### 차가게살자(드림팩토리클럽)

이정호(유잉육종/국립암센터/인천) 200만원  
조혜인(금성골수섬유증/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대구) 1,086,800원

### 홍명보장학재단

강선건(상외세포종/국립암센터/서울) 450만원  
강중윤(골수이형성증/삼성서울병원/서울) 500만원  
노나은(월름스증양/서울아산병원/경기) 650만원  
윤성현(배아세포종/국립암센터/충남) 800만원  
황재형(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전남) 500만원

### 그랜드코리아레저

박수아(혈구탐식성조직구증식종/서울성모병원/울산) 762,690원

### KCMC

황재형(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전남) 2,377,210원

### (주)맥텍

최지율(금성골수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경기) 1,000만원

## 간접치료비

### \* 정기 간접치료비 (신규)

#### 기업은행노동조합 매월 15만원

김나영(뇌종양/서울대학교병원/충남)  
박철휘(금성림프모구백혈병/인하대학교병원/인천)  
백재희(금성림프모구백혈병/충남대학교병원/충북)  
윤성현(배아세포종/국립암센터/충남)  
이다혜(악성림프종/부산대학교병원/부산)  
이현민(황문근육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광주)  
최선웅(금성림프모구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광주)  
하동건(금성림프모구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경북)  
한윤혁(금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경기)

#### 이경민포레 매월 20만원

박성균(재생불량빈혈/삼성서울병원/경기)

### 케이엘넷 매월 20만원

손채희(황문근육종/서울성모병원/인천)

### 태진인터넷내셔널 매월 20만원

이동해 (금성림프모구백혈병/이대목동병원/서울)

### 허명은 개인후원자 매월 20만원

이세빈(금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서울)  
황재형(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전남)

### \* 일시 간접치료비

#### 나함 각 100만원

강선건(상외세포종/국립암센터/서울) 100만원  
남태영(경제조직성연골육종/서울성모병원/전북)  
오준석(금성골수성백혈병/이대목동병원/서울)

### (주)모디카이베타흐

김민기(뇌종양/서울대학교병원/서울) 500만원(월 30만원)

### 우체국한사랑기금 각 200만원

권규보(미분화육종/부산대학교병원/부산)  
김다빈(금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경기)  
남경민(생식세포종양/서울대학교병원/충북)  
노경준(유잉육종/삼성서울병원/광주)  
박솔(금성림프모구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경기)  
박재건(양막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충북)  
박지연(금성림프모구백혈병/인하대학교병원/인천)  
신아드(항암혈/금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백병원/부산)  
신연우(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경북)  
안지결(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충남)  
오현수(황문근육종/서울아산병원/제주)  
윤찬(금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서울)  
이광호(금성골수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부산)  
조혜인(금성골수섬유증/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대구)  
최지율(금성골수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경기)

### KRA(한국마사회) 각 100만원

송지훈(급성이중표형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부산)  
최민규(금성림프모구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광주)

## 가발지원

### 하이모

김현경(연부조직육종/서울대학교병원/강원)  
엄지혜(급성혼형성백혈병/영남대학교병원/대구)  
우예은(골육종/서울대학교병원/경북)

### 서울병원

김보영(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경남)  
송예슬(수모세포종/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대구)  
이정빈(수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서울)  
한재철(악성림프종/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대구)

### KB국민은행 피겨Queen연아사랑적금

권오성(악성림프종/서울대학교병원/경기)  
김다빈(금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경기)  
박다솔(만성골수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박예린(황문근육종/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대구)  
이윤경(금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이주현(금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경기)  
이지현(비호지킨림프종/서울대학교병원/경기)  
장동균(황문근육종/서울대학교병원/경기)  
장윤진(상피육종/서울대학교병원/대구)  
최준혁(금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인천)  
홍순명(악성림프종/서울대학교병원/경기)

\* 본 재단은 1997년부터 가발 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급변호부터 가발 지원결정명단 공지를 시작합니다. \*

소아암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후원**

강연주	강오현	강정운	강정화	곽기활	구영남	권은정	권은지	김대우	김민자	김봉휘	김성민	김아윤	김연수	김정래	김정진
김조현	김지연	김지영	김지현	김태호	김현경	김형지	김효진	나지인	남복희	박상은	박소연	박영경	박정미	박정은	박정훈
박주현	박지원	박진휘	박 찬	배군나	백주승	백채원	서경봉	석인수	성호제	소선정	손 호	안기연	안여림	안여운	안현숙
양은미	오해순	유대산	유지은	유한준	이경희	이동훈	이미경	이미란	이상우	이수영	이순영	이어진	이연수	이정민	이종석
이종여	이주현	이지선	이태영	이태희	이혜진	이호석	이호옥	이희정	임미란	임미희	임상준	임충신	장성하	장훈석	장훈석
전승진	전영훈	정미령	정민아	정수진	정왕덕	정하영	정희정	제갈훈	조부영	조성인	조연주	조희봉	진현정	최미자	최 설
최영신	최영환	최원석	최정라	한상필	홍세란	황영집	황인혁	황재경	(주)조흥기공						

**일시후원**

강원상	강준희	고나윤	김경자	김규중	김미선	김민정	김선구	김성희	김승의	김아인	김은별	김은희	김정현	김준희	김지영
김진항	김현철	김혜정	남복희	목경수	문현용	박병준	박선옥	박성진	박일준	박종화	박찬순	박철훈	방희란	성진욱	성진욱
손문호	손미란	심재석	오남경	오은주	유경석	유상운	유영훈	윤수정	이경미	이다예	이미정	이미정	이병관	이상배	이영준
이유정	이정우	이정은	이정화	이희문	전창균	정명은	정안서	정재근	조우현	조형권	주현덕	홍진세	황선주	황영집	랄라

문정제일교회 박수현박현규 원치를기대하며 용인우체국장 이계빈우 익명기부 임헌 자동차부품연대 체진기대 청구영로새마을금고 최연식김보민 서

**후원물품**

익명 과일 한과 삼성SDS 생필품 서경봉 상품권 우정사업본부 공기청정기 김현중퍼펙트 쌀 180kg

**현열증서(매)**

권진욱(5) 김진용(14) 동래구청(468) 박성민(15) 박연주(143) 여영권(17) 은미영(16) 이유진(11) 익명(1) 익명(1) 익명(2) 장한신(6) 장화순(20) 전남체신청(500) 하종운(20) 한국도로공사(1,000) 한동수(5) 황봉섭(26) LG전자(42)

**2010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1) 기부금 영수증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발송일자 : 2011년 1월 6일(CMS방법으로 기부금을 납입해 주는 후원자)  
2011년 1월 14일(자동이체, 지로로 기부금을 납입해 주는 후원자)

※ 일반우편으로 일괄 발송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등록하지 않은 후원자의 경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바로 발송해 드립니다.

**(2) 주소, 연락처가 변경되지는 않으셨나요? 미리 확인해 주세요!**

정확한 우편물 수령을 위해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연락처)을 미리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2010년 12월 30일부터 확인 가능)**

로그인 후, 나의정보 → 후원정보 → 기부금 영수증 출력(확인용)에서 2010년 내역을 선택하고 인쇄버튼을 누르면 기부금 영수증(확인용)이 출력됩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 001-01-2353-890  
농 협 : 029-01-176943

신한은행 : 140-000-762725  
우리은행 : 112-04-112571

우 체 국 : 012989-01-003327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집에서 다섯 시간 붙잡고 있어도 안되는일이  
카페에 오면 한시간도 안되어서 끝을 낸다.  
오... 마법의 카페, 카페 천국!

글·그림 소복이

글·그림 소복이.  
sobogi.net



## 오방떡 소녀의 행복한 날들

출판사 : 책으로여는세상  
글,그림 : 조수진



### » 소개의 글

이 책은 현재 '오방떡소녀'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서 만화가로 활동 중인 지은이의 두 번째 카툰집으로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카툰집입니다. 과학고, 서울대 졸업, 대기업 취업. 탄탄대로를 걷던 예쁘고 꿈 많은 스물일곱의 이른바 잘나가는 엄·친·딸 아가씨의 이야기!

어느 날 심한 기침이 시작되었고, 약을 먹어도 낫질 않고, 무릎 관절이 아파오고,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다 거친 결과 내린 진단은 임파선 암. 이후로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요양원, 골수이식에 이르기까지 그 힘든 과정을 지금까지도 깨끗하게 견뎌내던 중, 어릴 적 꿈을 기억해내 투병 일지를 만화로 그리기 시작, 블로그에 올리면서 이 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라는 억울함과 속상함의 시기를 거쳐 이제는 암과 함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암을 통해서도 뭔가 배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그녀.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생각이 힘겨운 투병과정을 재치 있고 유쾌하게 글과 그림으로 표현되었고, '내게도 사랑이 올까?' 고민하는 20대 소녀~의 달콤 쌉싸름한 연애 이야기,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는 가족 이야기 등이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암 투병으로 보내고 있는 한 아름다운 사람의 일상이 때로는 힘든 그대로, 때로는 힘든 과정을 유머와 밝음으로 승화시켜 치료과정을 이겨내는 모습으로 그려지며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 » 책의 내용

암과 함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암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활기를 되찾게 된 생활, 그리고 그리게 된 만화.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지만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벌떡 일어나서 청춘을 즐기는, 울고 웃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면서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젊은 날을 보내는 오방떡소녀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웃을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찾아내게 되었다.

그래, 우리는 모두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 뭐든지 뜻대로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지만 힘든 중에도 고통의 무게에 눌려서 행복과 웃음의 순간들을 외면해버리지는 말자고, 당신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해주고 싶다. 살아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숨 쉬며 살아 있으니까 힘을 내야지!

#### 저자소개

• 글, 그림 : 조수진 - 투병 중 어릴 적 꿈을 기억해내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2009년, 암 환자의 소소한 일상과 기쁨, 슬픔 그리고 희망을 담은 자전적 만화책 《암은 암, 청춘은 청춘》을 펴냈고, 같은 해 《좋은 부모의 시작은 자기치유다》를 번역했다.

☞ 오방떡소녀의 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obangdduk>

KBS <아침마당>화요초대석 (2009년 6월 16일), SBS 백세<건강스페셜> (2009년 8월 11일), CBS <새롭게 하소서>(2009년 7월 20일), EBS <다큐 프라인> (2010년 2월 9일), KBS 감성다큐 <미지수>(2010년 4월 24일) 등에 출연하였다.

### LG전자 노랑Reborn+ 캠페인 참여



소아암 어린이를 건강히 다시 태어나게 하는 캠페인 [노랑Reborn+]에 LG전자 임직원과 블로거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소아암 어린이의 이식비 마련을 위해 진행된 본 행사는 LG전자 임직원이 헌혈을 할 때마다 1장당 1만원, 블로거들이 헌혈 후 인증샷을 블로그에 올릴 때마다 1만원을 LG전자에서 후원하여 적립된 후원금 총 1,636만원을 전달해주었습니다. 노랑Reborn+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LG전자 임직원 여러분, 블로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김현중퍼펙트 쌀화환 선물



가수 겸 텔런트 김현중의 팬클럽인 '김현중퍼펙트'를 비롯한 김현중씨의 세계 16개국 팬들이 드라마 '장난스런 키스'의 성공을 기원하며, 준비한 쌀화환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 쉽터에 머무는 가족들이 든든히 먹고 힘을 내 치료 받을 수 있는 무려 180kg의 쌀. 전 세계의 김현중 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전달된 쌀과 아름다운 마음은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 푸른바다 희망충전



9월 7~9일, 소아암 어린이 가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제주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프로그램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은 소아암 치료 기간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푸른 바다에 날려 보내고,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추억은 소아암 완치에 대한 희망을 더욱 밝게 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도움을 준 한국관광공사와 제주신라호텔에 감사드립니다.

### 이베이 옥션, 소아암 어린이 이식비 지원



이베이 옥션은 '나눔소핑'을 통해 고객과 함께 소아암 어린이 돕기에 참여합니다.

11월 24일 진행된 나눔 협약식에서 지속적으로 소아암 어린이의 이식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는 치료 중인 소아암 어린이 가족도 참석하여 영화 관람, 마술쇼, 선물 증정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눔에 동참한 이베이 옥션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는 삼성그룹 임직원이 모여 이룬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제8회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 음악회가 11월 21일, 세

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010 소아암 바로알기 캠페인



재단에서는 '완치율 80%'라는 주제로 애니메이션 동영상 제작하여 일반인들이 보다 쉽고 친근하게 소아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동영상은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기업은행 전 영업점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의선, 중앙선, 광명선을 노선에서 상영됩니다.

### (주)맥텍, 치료비 후원

(주)맥텍은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맥텍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삼성SDS 1m 1원 마라톤 기금 전달

삼성SDS 임직원들은 1997년부터 '소아암 어린이 돕기 1m 1원 마라톤'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5명의 소아암 어린이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해마다 행사를 준비하고 마라토너로 참가하는 삼성SDS 임직원 여러분들의 땀과 완치 염원이 담긴 따뜻한 사랑은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삼성SDS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항균 마스크 지원



Daum 네티즌들의 희망을 모아 7,500개의 항균마스크를 제작,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Daum 희망모금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를 응원해 준 1,859명의 네티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0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과정을 돕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물품(공기청정기, 미세먼지용 청소기, 항균침구류, 식기살균기 중 택1)이 소아암 어린이 55가족에게 지원되었습니다.

후원해 준 MBC어린이에게세생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립니다.

## 완치기원 연날리기



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0월 9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제10회 소아암 어린이 '완치기원 연날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완치기원 연날리기 행사는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박교명)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소아암 어린이 가족 130명이 참여해 오랜 치료로 지

## 맘스다이러리 인세기부 약정



육아일기 중 60편을 선정하여 에세이집 '맘스다이러리'를 출판했습니다.

11월 3일, 희망미소 소아암센터에서 (주)맘스의 인세기부 약정식이 있었습니다. (주)맘스는 출산육아정보 포털사이트로 1,000만여 건이 넘는 엄마들의 진솔한

## NH카드, 러브트리카드 출시



11월 16일, NH카드 는 기부전용 카드인 '러브트리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러브트

인트 기부와 월정액 기부 방법으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지정하여 기부하면, 소아암 어린이의 이식비와 치료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카드 기부를 원하는 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문화예술체험



족들은 정서 환기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피겨Queen 연아사랑적금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예술체험이 서울, 대구, 부산에서 각각 진행되었으며 총 54가족, 1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 가

## 한사랑 문화체험



지난 9월 28~29일 '소아암 어린이 가족과 함께하는 2010 한사랑문화체험'이 에버랜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 가족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본 프로그램에는 49가족, 1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후원해 준 우정사업본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28~29일 '소아암 어린이 가족과 함께하는 2010 한사랑문화체험'이 에버랜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 가

소아암 바로알기 캠페인

# 소아암 완치율

**소** 아암 완치율은 80%!  
 어때요? 생각보다 높지 않나요?  
 지난 수십 년간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져  
 소아암 완치율은 80%까지 향상되었습니다.  
 백혈병·소아암이 불치병이라는 편견은  
 이제 버려도 되겠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캠페인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발행인/오연천 편집인/서선원 발행처/(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110-524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4가 188-14 인설빌딩 4층 전화/02) 766-7671(대) 팩스/02) 766-7674

☎ [www.kclf.org](http://www.kclf.org)    ✉ [cancer@kclf.org](mailto:cancer@kclf.org)